

# 완성차업계, AI·SW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 확보 분주

현대차그룹 HMG 테크 탤런트 포럼  
호세 무뇨스 사장 등 경영진 총출동

벤츠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 체질전환  
BMW 주행경험 전반 새롭게 재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에 분주하다. 대상은 과거 자동차공학 중심에서 최근에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데이터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AI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17~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현대차그룹은 17~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HMG 테크 탤런트 포럼'을 열고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그룹

서 'HMG 테크 탤런트 포럼'을 열고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박민우 첨단차플랫폼본부(AVP)장 사장, 만프레드 하리 연구개발(R&D)본부장 사장 등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SW)·하드

웨어(HW)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총출동한다.

현대차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규모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하반기 채용을 진행했으며 SDV, 로봇틱스, AI 반도체 등 피

지컬 AI 신사업 분야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동차 본고장 독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의 하드웨어 경쟁력에 더해 자체 운영체제(OS)와 AI,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경쟁력으로 삼으면서 관련 인재 확보와 기술 내재화에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핵심은 자체 개발한 차량용 운영체제 'MB.OS'다. 메르세데스-벤츠는 MB.OS 구현을 위해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전환 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30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BMW는 '노이어 클라쎄'를 통해 차량의 전자·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주행 경험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와 자율주행, 주행성능, 차량 기본

기능을 담당하는 4개의 고성능 컴퓨터를 '슈퍼브레인'으로 통합했다. 기존 세대 대비 연산능력을 20배 이상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분리해 차량 출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를 지속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다. BMW는 미국·독일·중국·이스라엘·한국·싱가포르 등 주요 기술 거점에 기술 조직을 두고 있고, 글로벌 IT·소프트웨어 허브에서 AI와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각 허브에 AI 개발팀을 두고 자체 AI 기술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은 인재 확보와 함께 자체 SW 조직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엔비디아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 U+, '일상비일상의틈' 재단장... "예술과 고객 연결"

홍범식 대표, 프리뷰 행사 직접 행거  
데이터 기반 고객 참여형 플랫폼 육성

LG유플러스가 문화예술복합공간 '일상비일상의틈'을 재단장해 선보인다. 2020년 개관 이후 6년간 축적한 운영 데이터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축적해 나가는 고객 참여형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준형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가장 인간다운 창의성과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예술"이라며 "LG유플러스의 '심플리' 가치를 예술을 통해 이어나갈 것"이라고



지난 14일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운데 오른쪽)와 예릭 오 작가(가운데 왼쪽)를 비롯한 초청 관람객들이 '고객 프리뷰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대표 브랜드 철학 '심플리 유플러스'를 발표하고 기술로 고객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연결'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실현한 대표 사례다.

통신기업이 문화예술 후원에 적극적인

로 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물린다. 독일 도이체텔레콤은 2024년부터 자국의 현대미술관과 동유럽의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스페인 텔레포니카는 2012년부터 마드리드 중심부에서 현대미술 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일상비일상의틈은 팝업 문화 열풍 속에서 이어오던 공간 주제를 현대 미술 전시와 신진 작가 육성으로 탈바꿈한다. 지향점은 작가의 창작 및 성장 과정이 담긴 최종 작품을 고객 경험까지 확장하는 문화 예술 플랫폼이다.

공간의 주된 콘셉트는 '아트 개러지'다. 완성된 작품을 걸어놓는 아트 갤러리와 차별화된 개념으로, 차고(車庫)처럼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창작하며 작품을 완성해가는 공간을 상징한다.

AI 기술은 전시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 개개인에 맞는 전시 설명을 구현하는 'AI 아트 메이트'에서 방문객은 전시 초입에 배치된 키오스크에서 4단계 질문에 답하고, 개인의 취향이 담긴 카드를 받는다. 이후 전시 설명에 카드를 태그하면 데이터로 기록되고 전시를 마친 후 관람 스타일을 정리한 '아트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일상비일상의틈은 신진 작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K-아트 인큐베이터로 거듭날 전망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의 관심도 각별하다. 홍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프리뷰 행사에도 참석해 창작자들을 맞이하고 소규모 전시를 관람했다.

/조민선 기자 msjo@



# 풍요로운 한가위,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제10대 의원 일동**

따뜻한 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보내십시오.